

대대로 전해지는 야마가타의 철학

山形の基底に流れ、受け継がれる思想



▲ 우에스기 요잔
(1751~1822)
요네자와번의 제9대번주
上杉鷹山(ようざん)
米沢藩第9代藩主

전국지사(후계자에게 전하는 치국의 마음가짐)

- 국가는 선조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통치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
- 백성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통치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
- 통치자는 백성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백성과 국가는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伝国之辞(でんこくのじ)

- 一、国家は先祖より子孫へ伝え候国家にして我私すべき物にはこれ無く候
- 一、人民は国家に属したる人民にして我私すべき物にはこれ無く候
- 一、国家人民の為に立てる君にて君の為に立たる国家人民にはこれ無く候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에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탁월한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혁뿐만 아니라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기본정신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에스기 요잔은 그가 35세때에 후계자에게 전하는 3개의 조항(후에 요네자와 번주가 되는 인물들에게 대대로 전해짐)인 ‘전국지사(伝国之辞)’를 남겼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는 선조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통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백성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통치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군주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군주를 위해 국가와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사’가 쓰인 1785년은 미국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지 9년 후이며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4년 전으로, 실로 일본의 근대화를 짚어준 사상가와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의 정치가는 누구인가?’라는 일본기자단의 질문에 ‘우에스기 요잔’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치무라 칸조가 쓴 ‘전국지사’를 읽은 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원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합니다.

山形県の南端部に米沢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遡ること230年ほど前、ここには藩政改革で有名な上杉鷹山という名君がいました。

鷹山の改革は、単に財政赤字の削減だけではなく、領民への「愛と信頼」に基づき、「やさしさと思いやりに満ちた地域づくり」に目標を置いていました。

鷹山が35歳で家督を譲る際に贈った3カ条、後に米沢藩主交代の都度引継がれた「伝国之辞」を紹介します。

ここには、「国家は先祖から子孫に伝えるものであって、自分で身勝手にしてはならない」「人民は国家に属しているものであって、自分で勝手にしてはならない」「国家と人民のために君主はいるのであって、君主のために国家や人民があるのではない」といった、民主主義の基本原則とも言うべき考え方が示されています。

伝国之辞がつくられた1785年は、実にアメリカ独立宣言の9年後、フランス人権宣言の4年前です。

このような考えは、後の日本の近代化を担った思想家、政治家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のことです。

1961年、第35代米国大統領に就任したジョン・F・ケネディは、日本人記者団に「あなたが日本で最も尊敬する政治家はだれですか」と尋ねられ、「上杉鷹山です」と答えたと言われています。

おそらく、内村鑑三の英訳した「伝国之辞」を読み、アジアの小国で現代につながる民主主義の源流が形づくられたことを驚きとともに、尊敬の念をもって心の奥に深く刻んだ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